

'익산 미륵사지 관광지' 공식 개장

대규모 관광 인프라 갖춰 16년만 완공... 개장 기념 '다이로움 콘서트' 열려
지방도 722호선 1km 구간 이설 · 4차선 확장 · 366대 수용가능 주차장 마련

익산 미륵사지 관광지가 본격 개장하며 대규모 관광 인프라를 갖춘 역사문화관광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익산 미륵사지 관광지가 사업 지정 이후 10여 년간 토지매입 등으로 난항을 겪던 것을 2018년 정현을 시장이 취임하면서 조성계획변경 승인, 실시설계, 문화재 심의 등을 빠르게 추진해 16년 만에 완공해 6일 공식 개장했다.

익산 미륵사지 관광지는 국비 포함 총 386억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총 면적 108,743㎡에 이른다.

지난해 8월 지방도 722호선 1km 구간 이설과 4차선 확장하고 336대 수용가능한 주차장을 마

련해 관광객들의 교통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미륵산을 배경으로 동탑과 서탑, 미륵사지 터가 한눈에 펼쳐지는 광장은 역사문화 소통공간으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지형과 자연을 최대한 보존한 자연지형 녹지 공원은 자연미와 역사미를 갖춘 휴식 공간이 될 것이다.

한편 시는 개장을 기념해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한 시의원, 지역주민, 관광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륵사지 관광지 내 광장에서 지난 6일 오후 6시에 '다이로움 콘서트'를 진행했다.

콘서트는 미륵사지 서탑으로 지는 일몰을 배

경으로 시립예술단인 무용단, 풍물단, 합창단 공연을 주축으로 1시간 반가량 이뤄져 미륵사지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미륵사지 관광지는 2020년 한국관광의 별 본상 수상에 이어 지난해에는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둔 바 있다"며 "이번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을 기념하는 '다이로움 콘서트'를 계기로 세계유산 미륵사지와 국립익산박물관 등과 함께 명실상부한 관광지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연석산미술관, 최은우 작가 개인전

레지던스 입주작가 성과보고전... 12일까지 진행

한국 8대 오지 중 하나인 완주군 동상면에 자리 잡은 연석산미술관(관장 박인현)에서 레지던스(5기) 미술작가의 전시와 지역민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레지던스는 미술작가들이 일정 공간에 체류하면서 창작·발표하고, 지역민과 교류·소통하며 자신들의 예술세계를 성숙하게 다지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전북도문화관광재단의 창작공간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연석산미술관 레지던스는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전문가와 지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왔다.

지난 5월 온라인 공모를 통해 13명의 지원신청을 받아 1차 서류심사를 거친 후, 외부 심사위원에 의해 작품세계의 독창성·창작계획·능동적인 태도·지역사회 커뮤니티에 대한 견해 등을 기준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했다. 그 결과 7명의 국내외 미술작가들(김형숙, Ainhoa Martinez(스페인),



최은우 작가 페인팅.

Balinyam Sukhbold(몽골), 김아롱, 김다롱, 이부안, 최은우)을 선정했으며, 7월 30일부터 8월 12일까지 최은우 작가의 성과보고전이 진행된다. 최은우 작가는 패턴을 이용한 드로잉 그리고 회화와 조형예술에 기반한 회화작업을 하고 있다.

그는 일상 속 사건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흔적들을 재구성하고 있다. 사람들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감정, 방식 등을 연결해보며 이를 재해석한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회화와 드로잉, 그리고 다양한 소재연구를 통해 은유적,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연석산미술관 레지던스에서는 주로 내면의 이야기를 패턴 드로잉을 통해 주로 평면작업을 진행했다. 작품 속 세밀한 패턴은 반복과 파장, 연속성, 잔재를 뜻하며 또 다른 언어로서의 기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작품을 보는 위치에 따라 다른 색감을 느끼게 하는 기법은 관람자가 관람하는 위치, 관점과 시각의 상대적인 차이를 상징한다.

최은우 작가는 계원예술대학교 애니메이션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애니메이션 심화

과정을 졸업했다. 서울, 전주, 완주에서 7회 개인전을 했으며, 완주 누에 아티스트 레지던시, 전북도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에 참여했다.

김선태 미술평론가는 "최은우의 작업은 영상이 아닌 평면으로 가상적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내면적 욕구와 갈망을 가시적 세계로 바라보는 자신만의 미적 의식을 감흥의 세계로 전이시키려 한 애쓰 흔적이 묻어 있다. 이는 대체로 소소할 수 있으나 작가에게 낯다른 미감으로 다가오는 여러 다층 이미지들을 과거의 기억과 흔적시킴으로써 숨겨진 것과 드러난 표상과 감춰진 실체의 상반된 대립의 접점인 세상을 꿈꾼다"라고 말했다.

최은우 작가는 "동료 작가들의 레지던스 경험이나 성과보고전 등을 통해 연석산미술관 레지던스를 종종 방문했다. 그런 기회를 통해 이 공간이 작업을 위해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을 늘 해왔다. 작품의 소재가 자연, 숲의 이미지와도 연관이 있었던 만큼 이곳의 환경을 작품 속에 녹여낼 수 있었던 훌륭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무주군, 반디랜드 특별기획전 '갑각류 단단한 녀석들'

무주곤충박물관 수족관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갑각류 등 볼 수 있어... 반디랜드 9월 4일까지 휴무없이 운영

무주군이 국내 대표관광지로 육성하고 있는 반디랜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9월 4일까지 휴무없이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주반디랜드는 이 기간 중 월요일 휴일이 필요한 야외물놀이장을 제외하고 전 시설을 개방해 무더운 여름을 피해 무주를 찾은 관광객을 맞이한다.

특히 무주곤충박물관 수족관에서 '갑각류, 단단한 녀석들' 주제로 갑각류를 소개하는 특별 전시를 기획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무주곤충박물관에 가면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국내 청정 지역에서만 서식한다고 알려진 풍년새우와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일컬어지는 긴꼬리투구새우, 환경부 생태계 교란 생물종으로 지정된 미국가재를 볼 수 있다.

이들 생물은 우리나라 물 속 환경을 알 수 있는 척도로 박물관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는 살아있는 '환경교육의 장'이 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이외에도 참가재를 비롯한 징거미새우, 새뱅이, 도둑게 등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대표적 갑각류들과 아름답고 독특한 생김새를 가진 새우들, 애완용으로 널리 알려진 해외의 가재들도 관람객의 눈을 사로잡고 있다.

또한 반디랜드는 오는 27일부터 9월 4일 동안 개최되는 제26회 반딧불축제에 맞아 반디랜드 내 곤충박물관에서 살아있는 반딧불이의 불빛을 체험할 수 있는 불거리도 준비하고 있다.

무주군청 시설사업소 반디휴양림 김도환 팀장은 "반디랜드를 찾아주시는 가족단위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자연교육의 기회를



무주군이 국내 대표관광지로 육성하고 있는 반디랜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9월 4일까지 휴무없이 운영한다. 특히 무주곤충박물관 수족관에서 '갑각류, 단단한 녀석들' 주제로 갑각류를 소개하는 특별전시를 기획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청정무주를 알리는 문화관광의 일번지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갈수기 농업용수를 저장했던 '뚝방'의 생태학적 의미를 알리는 '무주의 뚝방 속 생물' 특별전이 무주 곤충박물관에서 개최해 관람객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뚝방 속 생물인 다슬기를 비롯해 참붕어, 물달팽이, 우렁이, 물자라, 왕잠자리, 새뱅이, 줄새우 등 20여 종을 소개하기도 했다.

뚝방의 실제모습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해 어린이들에게 살아있는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부안군문화재단, 석정문학관 하반기 문예창작교실 참여자 모집

부안군문화재단(이사장 권인현, 이하 재단)에서 부안군에 거주하는 모든 지역민을 대상으로, 석정문학관 하반기 문예창작교실 '특별한 詩(시작)' 참여자를 8월 한 달간 선착순 모집한다.

문예창작교실 '특별한 詩(시작)'은 문학을

통한 치유와 힐링으로 함께 행복한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한다.

또한 글쓰기 수업을 통해 지역민의 아름다운 삶의 근간이 되는 문학적 소양을 함양하여 일상적인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사업은 9월 6일을 시작으로 11월 19일까지 총 12회차의 수업이 준비되어 있으며, 오후 6시 이후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직장인의 참여가 수월해졌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